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곽 금 주

오산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심리학 전반에 걸쳐 삶의 질, 주관적인 행복감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대부분 성인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청소년용 삶의 만족도 검사 (MSLSS)를 중학교 1학년(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난 대구의 Y중학교와 서울의 B중학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체영역과 하위 영역 점수의 내적 일치성을 고려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33개 문항의 검사가 만들어 졌다. 이 검사와 자기상 검사의 일부 하위 차원을 비교하였고, 뿐만 아니라 생활 사건과 우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부정적인 생활 사건은 우울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MSLSS를 제작한 Huebner(1994)의 연구결과와 비교는의 하였고,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사건과 삶의 만족에 관해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심리학은 인간의 불행이나 장애 등 부정적인 측면의 심리적 기제를 다루는 데에만 전념해 왔을 뿐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Diener, 1984). 그러나 최근들어 더이상, 우울과 죽음과 자살이 아니라 "사랑"의 기제나 유형을 이론화하려는 움직임 (Sternberg, 1986)도 일어났으며, 인간의 행복에 관한 관심 또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Cowen (1991)은 만들어 놓은 지표에 따른 장애의 진단이나 치료에 중점을 둔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앞으로는 심리적인 건강(psychological wellness)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10년 동안 인간의 삶의 질, 주관적 안녕복지(subjective well being)가 심리학의 주요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긍정적인 주관적 복지란 단지 정신병리 증상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Diener, 1984; Schlosser, 1990), 더 나아가 삶의 만족이란 우울이나 정서장애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Head, Kelley, & Wearing, 1993). 인간의 건강한 정신과 적용의 기준을 단지 정신병리가 부재한 것에만 초점을 둔 전통적인 기준외에 인간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보다 강조하고 긍정적, 부정적 주관적 복지와 관련된 변인을 밝히려는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다.

주관적 복지에는 긍정적인 정서(positive affect), 부정적인 정서(negative affect), 그리고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의 세가지 주요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Andrew & Withey, 1976; Argyle, 1987; Diener, 1984). 첫번째 두 요인은 정서반응(예: 기쁨 또는 슬픔과 감정의 빈도)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삶의 만족 요인은 인지적, 평가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삶의 만족이란 스스로의 기준에 따른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총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총체적 삶의 만족이란 특정차원(자신, 가족, 친구, 학교 생활) 각각의 평가 이상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Evans, Burns, Robinson, & Garrett, 198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것에 비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 긍정적인 주관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행복과 관련된 개념 (행복과 관련된 자기개념: Harter, 1989)으로는 논의된 바 있으나 삶의 만족 개념 그 자체는 아동, 청소년 발달에서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Huebner, 1994).

그 원인 중 한 가지는 이제 까지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도구 없었기 때문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한가지는 청소년용 '지각된 삶의 만족도 척도(Perceived Life Satisfaction Scale: PLSS, Adelman, Taylor, Nelson, 1989)가 있다. 이것은 물질적 복지, 신체적 복지, 관계, 개인의 발달, 오락 등의 다섯가지 차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차원들이 독립적인 개인에만 국한된

것으로 주변의 환경과의 관계를 무시했으며, 차원들이 잘 변별되지도 않을 뿐더러 요인구조 또한 복잡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uebner & Dew, 1993).

다른 척도로는 '학생용 삶의 만족도 척도(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 SLSS, Huebner, 1991)'이다. 이것은 Diener와 동료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이 개발한 척도에 근거한 자기보고식 7문항 척도이다. 이것을 사용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 척도는 내적 일관성이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았고, 다른 변인들과 상관도 높았다. 예를 들어 자기개념, 통제감, 외향성과는 정적상관이 그리고 불안, 우울, 고독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Huebner, 1991). 교사가 평정한 행동 문제, 부모가 평정한 학생의 삶의 만족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Huebner & Aderman, 1993). 그러나 이 도구는 특정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예: 나의 삶은 잘 되어가고 있다, 나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바꾸고 싶다)으로 되어 있으며, 단일차원의 요인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uebner, 1994).

그러나 청소년기란 성적 성숙 및 제2차 성장 급등등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맥락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또 이에 따른 심리적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PLSS나 SLSS와 같은 척도만으로는 청소년의 다차원적인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청소년기란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이때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춘재, 광금주, 1994). 그 중 하나는 '학교 상황에서의 변화'이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이에 따른 학교 상황의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국민학교에서는 한 교실에서 한 교사

에 의해 이루어지던 교육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과목별로 여러 교사에 의한 교육으로 변화되고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점차로 가정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흡연, 음주, 이성교제, 폭력과 같은 행동이 청소년기의 특정 학년에 따른 효과가 명백하다는 최근 연구 (Blyth, Simmon, Carlton-Ford, 198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번째 변화로는 '가족간 관계의 변화'로서, 특히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신체 및 심리적 변화에 대해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의 반응이 달라지면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그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청소년들은 자율성을 좀 더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증가하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Steinberg, 1981).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적 관계는 '친구관계의 변화'이다. 아동후기나 청소년기로 가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래의 중요성 및 그 영향력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또래와의 관계가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구조화되어가고 또 사회적 연결망이 증가한다 (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Jarcho, 1984).

따라서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일 차원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자신 내부에서, 그리고 주변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를 고려한 측정이 요구된다.

이와 유사한 관점을 Huebner(1994)의 설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차원적 학생 생활 만족도 척도 (Multidimensional 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 MSLSS)'를 개발하였다. 국민학교 3학년에서 8학년 까지의 학생들에게 측정하게 되어

있는 이 척도는 현재 3학년에서 5학년 까지의 연령에 대해서만 타당도 연구가 이루어 졌을 뿐,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또 다른 관련 변인(정서, 불안, 타인과의 실제 관계)과의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특히 중학교에 입학한 만 13세 (7학년) 연령을 대상으로 MSLSS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검사와의 타당도를 보기 위해 자기 상 검사의 하위영역을 함께 조사하였다.

아동, 청소년 시기에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과 관련된 구인으로 자기개념이 있다 (Harter, 1989). 청소년 초기의 자기개념의 일종으로 자기상을 측정하는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같은 자기상 측정을 통해 이 시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을 측정할 수 있다 (이춘재, 박금주, 1994; 이춘재, 오가실, 정옥분, 1991; 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 Jarcho, 1984; Turner & Mo, 1984). 이러한 연구들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여러 차원들에 있어서 개인 스스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SLSS와 자기상 검사의 하위영역 간의 관계 또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간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결정하는데 어느 한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인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소득과 삶의 질간에는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연령, 성별, 취업여부, 교육수준, 종교에 의한 효과, 그리고 친구관계와 같은 사회적 활동, 생활사건, 이외에 성격, 신체적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2).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성격, 대처능력과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외적 상황변인과 내적 성격요인 그 어느 하나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변인이 서로 상호작용 하여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실직, 범죄, 인구밀집, 가정붕괴와 같은 사회적 조건과 삶의 질과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중 외부적 상황 요인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개인의 내부적 특성에 의해 주관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Costa & McCrae, 1980, 1984). 척추 장애 같은 외상을 가지게 된 사건이 일어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에서 약 8주 정도가 지나자 그 이후로는 놀랍도록 적응을 잘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Silver, 1982)에 의하면 적응이란 단기간에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활 사건이 주관적 복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Silver(1982)가 밝힌 것과 같이 몇개월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또는 수년 동안 계속되는 것인지에 관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그 영향은 사건의 유형, 즉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내부적 요인으로 성격변인이 있는데, 이는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이란 성격변인 보다는 덜 안정적인 것으로 일시적 상황 요인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track, 1991). 그러나 생활 사건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생활 사건 조차 안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Heady, Wearing, 1989). 또 많은 연구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 사건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에서 성격 효과의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Brett, Brief, Burke, George, & Webster, 1990). 즉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조건도 실은 그 사람이 이미 지닌 성격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그 사람이 지닌 성격

이나 내부적 특성에 의해 긍정적인 사건을 또는 부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Fergusson & Horwood, 1987). 생활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과 관련된다는 연구들은 많으나 (Fergusson & Horwood, 1984), 이에 비해 생활 사건이나 변화가 성격변인에 연결된다는 연구는 비교적 적다.

정적사건과 부정 사건이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데 특히 정적사건에 비해 부정 사건에 대한 적용이 더 어렵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있어서도 최근의 생활 사건 만이 주관적 복지에 영향을 주며 특히 3개월 이내에서만 그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Suh & Fujita, 1995).

본 연구에서는 생활 사건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는 어느 정도 관련성을 지니는지 특히 자신의 성격 특성에 의해 생활 사건과 같은 주변 환경의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배제하기 위해 뜻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개발 중에 있는 청소년용 생활 만족도 척도를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실시하여 우리나라용 청소년 생활만족도 검사를 개발하고, 이외 생활사건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방 법

대 상

가스 폭발 사건이 난 대구의 Y 중학교 1학년 학생 212명과 이 사건의 영향이 비교적 적으리라고 생각되는 서울에 소재한 B 중학교 학생 208명 모두 4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시키고 415

명의 반응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평균 연령은 만 13.4세 (SD=.52)이며 모두 남학생이었다. 조사시기는 이 사건이 일어난지 약 50일이 지난, 1995년 6월 19일에서 6월 25일에 걸쳐 이루어 졌다.

측정도구

1. 학생 생활만족도 검사 (MSLSS): Huebner (1994)가 만든 이 검사를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교포와 본 연구자들이 논의하여 합치된 내용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다섯가지 차원에 따른 만족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내 자신이 마음에 든다” 와 같은 자기 만족 차원(10문항),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와 같은 학교 만족 차원(8문항),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마음에 든다”와 같은 주거환경 만족 차원(6문항), “나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와 같은 친구만족 차원(8문항), “나는 우리가족과 집에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와 같은 가족만족 차원(8문항)의 모두 40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에서 4점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각 차원의 점수는 문항의 수로 나눈 평균치를 사용한 것이다.

2. 자기 상 검사: 한국판으로 번안된 Petersen 등 (1984)의 SIQYA (Self - 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중 일부 (이춘재와 곽금주, 1994)를 사용하였다. SIQYA란 청소년기의 여러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모두 8개의 하위영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네개의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또는 주변 상황의 조절 능력에 대한 우월감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된 우월한 적응능력(superior adjustment) 영역,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와 장래의 예상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대처능력(mastery and coping)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17문항으로 된 가족 관계(family relationship) 영역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가족관계, 부모 관계에 대한 만족도, 각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를 측정한다. 이외 친구(동성)들과의 관계에 관한 태도, 친구 사귀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만족도와 유능감을 측정하는 친구 관계 영역(peer relationship)의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자신과 매우 비슷하다’에서 ‘자신과 전혀 다르다’의 6점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점수는 문항의 수로 나눈 평균치를 사용한 것이다.

3.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 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우울정도를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보고하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척도는 임상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binson, Shaver, Wrightsman, 1991). Noh, Avison 및 Kasper (1991)가 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캐나다의 한국교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4개의 문항을 첨가한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 척도’를 중심으로 ‘역학연구-우울 척도: 청소년용’에 추가된 2개 문항을 더하여 총 2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학생, 중학생 (곽금주와 문은영, 1993, 1995), 고등학생 (김정민, 1992)을 대상으로 이미 연구된 바 있다. 이 척도는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 등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4. 생활 사건: 청소년기의 생활사건을 측정하는 “청소년용 삶의 변화적인 사건 척도 (Adolescent Life Change Event Scale: ALCES,

Yeaworth, 1980)”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부모, 형제 친구의 사망, 부모의 실직및 이혼 또는 별거, 부모, 형제, 친구와의 다툼, 그리고 자신 외모의 변화, 전학과 같은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생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모두 31문항이며 각 문항에 가중치를 주어 점수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22개의 문항만을 실시하였다.

결 과

다차원적 학생생활만족도 척도(MSLSS) 40문항중 item-total correlation을 .30이하로 만드는 문항이 7개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33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0이었다. Huebner(1994)가 밝힌대로 5 개의 하위차원으로 나누어지는지를 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최대우도 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해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청소년용 삶의 만족도 검사 (Korean Life Satisfaction Scale for Adolescence: KLSSA)가 만들어 졌다. 33개 문항은 Huebner의 MSLSS의 5개의 공통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몇 개의 문항이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부록 참조)

삶의 만족도의 각 차원과 자기상 검사, 우울, 생활 사건 문항의 신뢰도(Cronbach alpha)가 표1에 있다.

청소년용 삶의 만족도 척도의 5개 차원과 청소년의 자기상 검사의 하위 영역 간의 상관을 보면 표 2와 같다. 자기상 검사의 하위 영역인 대처능력, 우월한 적응력, 친구관계,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하위영역 간에는 모두 정적상관

이 있었다. 이는 대처능력이 높고, 적응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관계와 부모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KLSSA의 수렴 타당도를 입증할 수 있다.

표1. 각 도구의 신뢰도

삶의 만족도 검사 (문항수)	
자기 만족(4)	.703
학교 만족(8)	.788
가족 만족(10)	.818
친구 만족(8)	.846
주변환경 만족(3)	.706
자기상 검사	
대처능력(10)	.623
우월한 적응력(10)	.707
친구관계 (10)	.811
가족관계(17)	.700
우울 (26)	.862

표2. 삶의 만족도와 자기상 검사 간의 상관

	대처능력	적응력	친구관계	가족관계
자기만족	.52**	.60**	.51**	.38**
학교만족	.32**	.33**	.33**	.36**
주위환경만족	.18*	.21**	.18**	.31**
친구만족	.33**	.43**	.64**	.37**
가족만족	.31**	.31**	.16*	.65**

* .01 ** .001

삶의 만족도와 우울 그리고 생활 사건과의 상관이 표3에 있다.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다섯차원 모두와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생활사

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단지 가족 만족영역만 생활 사건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우울과 생활 사건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대처능력	3.88(.67)	4.07(.63)	7.72**
우월한 적응력	3.81(.74)	3.83(.74)	.05
친구관계	4.04(.92)	4.24(.96)	3.77
가족관계	4.31(.53)	4.37(.56)	.91
우울	52.96(11.04)	50.42(10.58)	5.31*
생활사건	19.40(9.41)	17.38(8.87)	5.07*

표3. 삶의 만족도와 우울, 생활사건 간의 상관

* p<.05, ** p<.01

	1	2	3	4	5	6	7
1.자기만족	1.00						
2.학교만족	.33**	1.00					
3.가족만족	.40**	.38**	1.00				
4.친구만족	.56**	.38**	.38**	1.00			
5.주변환경만족	.24**	.35**	.41**	.30**	1.00		
6.우울	-.32**	-.36**	-.37**	-.42**	-.20**	1.00	
7.생활사건	.07	-.02	-.15*	.12	-.05	.17**	1.00

* .01 ** .001

대구의 Y 중학교 학생과 그 영향이 비교적 적으리라고 생각되는 서울 지역의 B 중학교 학생 간에 삶의 만족도, 자기상 척도, 우울증상 및 부정적 생활 사건의 각 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표4. 학교 집단에 따른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Y중 (205명)	B중 (196명)	F
삶의 만족도			
자기 만족	2.46(0.69)	2.52(0.68)	.83
학교 만족	2.38(0.59)	2.55(0.62)	8.13**
가족 만족	2.85(0.57)	2.88(0.61)	.14
친구 만족	2.89(0.59)	3.00(0.61)	2.97
주변환경 만족	2.53(0.76)	2.48(0.81)	.42
자기상			

각 영역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표4에 있다. 삶의 만족도 검사에서는 학교 만족에 있어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서울의 B중학교에 비해 대구의 Y중학교가 더 낮은 만족감을 지니고 있었다 (F1, 407 = 8.135, p<.01). 대처능력에 있어서도 서울의 B중학교에 비해 대구의 Y중학교가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F1, 407 = 7.728, p<.01). B중학교에 비해 대구의 Y중학교가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F1, 384 = 5.317, p<.05), 생활 사건에 있어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F1, 413 = 5.073, p<.05).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개발 중에 있는 청소년용 삶의 만족도(MSLSS) 검사를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요인 구조를 알아보고, 그리고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자기상 검사중 네 개의 하위 영역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33개의 문항이 Huebner (1994)가 밝힌 다섯가지 요인들로 묶여졌다. 이 다섯가지 영역은 자기상 검사와 정적 상관을 보여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것은 국민학교 3학년에서 5학년 까지 연령을 대상으로 하

여 자기 기술 검사(SDQ-I, Marsh, 1990)를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 검사와의 타당도를 살펴본 Huebner(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안대로 이 검사는 다차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유사한 구인인 자기상 검사와 비교한 결과 수렴타당도를 보여주었고, 총 문항 및 각 문항의 내적 일치도가 높아 신뢰로운 검사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KLSSA 척도는 자기 보고식 검사이므로 부모의 평정, 교사의 평정과 같은 다른 검사와의 타당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삶의 만족도 검사의 모든 영역이 우울과는 부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생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많을수록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뜻하지 않은 외부적 사건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을 겪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자에 포함 시켰다. 이는 결혼, 이혼, 또는 취업이나 실직과 같은 생활 사건이 청소년기에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부정적 사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생활 사건도 그 사람이 지닌 성격에 어느 정도 중재가 된다는 설명을 배제 하기 위해서였다. 가스 폭발사고로 인해 100여명 가까이 사망한 사건을 겪은 대구의 Y중학교와 이러한 사건의 영향이 비교적 적으리라고 생각되는 서울의 B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 부정적인 생활 사건 점수가 Y중학교가 B 중학교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형제 사망'과 '친구 사망', 두 문항의 반응을 평균하여 보면 Y중학교(M=30.63, SD=24.98)가 B중학교(M=6.93, SD=18.43)에 비해 더 많은 형제, 또는 친구의 사망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 사건은 우울과는 상관을 보이나, 가족 차원 이외의 삶의 만족도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 부정적인 생활 사건과 삶의 만족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변인으로서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며,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다른 연구 결과(Heady, Wearing, 1989; Suh & Fujita, 1995)와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겪은 사건이 예측한 것 만큼 그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같은 학급 안의 친한 친구가 사망 하였다거나, 자신에게 좀 더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학생들을 연구에 포함 시켜야 더 분명한 결과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스 폭발사고의 영향이 학생들에게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것을 걱정하는 학교 측으로 부터 이와 같은 조사를 수락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예를들어 면접과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좀 더 깊은 정보를 얻는 것이라든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들만을 선별하여 비교해 보는 것, 또 사건의 영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들어 성수대교의 붕괴,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미치는 심리학적 영향에 관해 심리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할 과제라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제한점은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문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 사회정책에 일조할 수 있어야겠다.

본 연구의 삶의 만족도 검사의 각 신뢰도(.703에서 .846 까지)는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Huebner, 1994) 경우와 (.82 - .85)와 비교해서

다소 낮았다. 그러나 외국 척도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대부분 척도의 신뢰도가 조금씩은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자기상 검사의 하위 영역의 신뢰도는 삶의 만족도 검사보다도 더 낮았다. 이는 자기상 검사로 한국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설명하는 일련의 연구 과정 (이춘재, 광금주, 1994)에서 일관적으로 발견된 현상으로 현재 문항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시기는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의 학교 변화가 일어나는 때 이므로 이러한 변화가 모든 변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학교 2학년과 같은 다른 연령을 포함시키고 또 다른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외부 사건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나, 국민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교에 걸쳐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학교성적, 친구관계, 성격요인 등)을 알아보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행복에 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광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광금주, 문은영(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II): 청소년기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정민(1992). 청소년기 기질적합성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춘재, 광금주(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I):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이춘재, 오가실, 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 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89-102.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Adelman, H.S., Taylor, L., & Nelson, P. (1989). Minors' dissatisfaction with their life circumstanc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0, 135-147.

Andrew, F.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Argyle, M. (1987).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Blyth, D.A., Simmons, R.G., & Carlton-ford, S. (1983). The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s to School Transition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105-120.

Brett, J. F., Brief, A.P., Burke, M. J., George, J. M., & Webster, J. (1990). Negative affectivity and the reporting of stressful life events. *Health Psychology*, 9, 57-68.

- Cowen, E. (1991). In pursuit of wellness. *American Psychologist*, *46*, 404-40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S., Larsen, R.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Harter, S. (1989).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of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 R. Sternberg(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eadey, B., Kelley, J., & Wearing, A. (1993). Dimensions of mental health: Life satisfaction, positive affect, anxiety, and depress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29*, 63-82.
- Noh, S., Avison, W., & Kasper, V.(1992).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 84-91.
-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Academic Press.
- Silver, R.L. (1982). Coping with an undesirable life event: A study of early reactions to physical dis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linois.
- Sternberg, R.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2), 119-135.
- Suh, E.M., Diener E., & Fujita, F. (1995).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pending revision.
- Yeaworth, R.C. (1980). The development of an adolescent life change event scale. *Adolescence*, *15*, 93

부 록

삶의 만족도 척도의 요인구조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나는 잘생겼다	.36480				
2.나는 학교에 있는게 좋다.			.70535		-.64974
3.다른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35877	
5.나는 우리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30073		.64709	
7.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			.71790		
9.나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49624				
10.부모님과 나는 재미있는 일을 함께 한다.				.54967	
11.나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37762				
12.학교는 재미있는 곳이다.	.33121		.79747		-.59705
13.내가 살고 있는 곳이 마음에 든다.		-.32365	.32903		
15.나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64628	
16.내가 살고 있는 집은 멋지다.				.38043	
17.학교에 갈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46595		
19.내 친구들은 나에게 잘 대해준다.	.65500			.30331	
20.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70234	
21.내 자신이 마음에 든다.	.36215				
23.나는 우리 이웃들을 좋아한다.		-.89529			
24.내 친구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75090				
25.우리 부모들은 나에게 공정하게 대하신다.			.63175		
26.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60306				-.60277
27.나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 들을 좋아한다			.49862		
29.내 친구들은 아주 좋다. (캘이다)	.58865	-.31897			
30.우리 가족은 서로를 잘 배려하면서 말한다.				.66524	
31.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31640			.32275	-.48415
32.나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45662	.32192	
33.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 들은 나를 도울 것이다.	.63735				-.37822
34.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낫다.	.31119			.59380	
35.내가 사는 주변에는 재미난 일들이 많다.	.31750	-.39429			
36.나는 학교가 싫다.			.60831		
37.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낸다.	.74099		.36821	.31192	-.36292
38.나는 친구가 많다.	.63534				-.41258
39.나는 좋은 사람이다.	.48279			.38417	-.57646
40.나는 우리 이웃들을 좋아한다.		-.81997		.31747	

요인	Eigenvalue	Pct of Var	Cum Pct
1	7.38476	22.4	22.4
2	1.72636	5.2	27.6
3	1.85981	5.6	33.2
4	1.76592	5.4	38.6
5	.90685	2.7	41.3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in Terms of KLSSA

Keumjoo Kwak

Osan College

Attention to the issue of quality of life or subjective well-being is increased among the psychologists. However most researches are with adult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the Korean Life Satisfaction Scale for Adolescence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the negative event to the life satisfaction. The MSLSS was administered to a sample of 420 first grade boys (mean age: 13.4) in junior high school(Y school and B school). The final version of the scale (KLSSA) demonstrated a 5-factor solution and acceptable internal consistency for the total and subscale scores. Furthermore the KLSSA subscales correlated with the criterion measure (the subscales of SIQYA). The negative life events correlated not with the life satisfaction but with the depression. Especially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with negative event (death of friend due to gas explosion) wa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from the others.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